

제2부
제7차 정기총회

보고 3.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보고 3.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2018~2019년 세계기본소득운동 기본소득 혹은 유사 기본소득 실험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이라 불리는 실험들, 기본소득운동에 기여하는 실험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자체 등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이다.”



보고 3.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눈에 띄는 특징과 논쟁점 그리고 가능성

기본소득은 정치다!

특정 인구집단(대부분 빈곤층 대상)에서 선정

기존 공공부조 방식의 변화, 즉 조건 없는 현금 이전

음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vs 보편적 기본소득

사적 기부를 통한 자원 마련: 정부 지급 vs 민간기관 지급

cf. 경기도 청년배당



보고 3.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끝났거나 진행 중이거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캐나다 온타리오 "기본소득" 실험
네덜란드 지자체들의 "신뢰 실험"
바르셀로나 "B-민컴" 실험
중국 마카오 카지노수익 배당 확대

2018년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2019년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2019년 이후를 준비하거나

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턴 시의 기본소득 실험
와이콤비네이터연구소의 기본소득 실험
독일 하르츠플러스 실험
스코틀랜드 기본소득 실험
우크라이나 파블로흐라드 기본소득 실험
인도 시킴(Sikkim) 주의 기본소득제 약속



보고 3.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끝난 실험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험 목적: 노동시장 변화에 맞춘 사회보장시스템 개편 방법을 찾는 것. 사회보장시스템이 노동 유인에 더 영향력 있고 효과적일 수 있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 더불어서 관료제를 축소하고 복잡한 복지급여 지급시스템을 간소화하는 것.

실험 대상: 25~58세의 실업자 2,000명(무작위 선정, 실험 거부권 없음)

실험 방법: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매달 560유로를 조건 없이, 자산심사 없이 지급

실험 결과: 2019년 봄에 2017년의 결과 발표, 2020년에 전체기간 결과 발표.

결과분석의 주요목표: 기본소득이 실험 참여자들의 소득과 고용상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 삶의 질에 기본소득이 미친 영향 등.

해프닝: 실험시행기관(Kela)에서 실험 기간과 규모의 확대를 2018년 초에 요청했으나 정부에서 거부함.



보고 3.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끝난 실험들

캐나다 온타리오 “기본소득” 실험(1)

실험 목적: “기본소득” 덕분에 저소득층의 기본적 필요가 더 잘 충족되는지, 그리고 식량 안전, 스트레스와 불안, 정신건강, 건강과 보건의료 이용, 주거안정, 교육훈련, 고용 및 노동시장 참여 등의 삶이 더 나아지는지를 테스트함.

실험 대상: 온타리오 주의 3개 도시(해밀턴, 린제이, 선더베이)에 거주하는 18~64세 노동 빈곤층 4,000명(무작위 선정, 실험 거부권 있음)

실험 방법:

3년간 ‘음의 소득세(NIT)’를 보장.

기준금액(독신이면 C\$ 16,989, 커플이면 C\$ 24,027)에서 벌어들인 연간소득의 50%를 뺀 금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급함.

지급한계선이 있음(독신의 경우, 벌어들인 연간소득이 C\$ 48,054를 넘으면 지급하지 않음).

가구상태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고 소득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정의와 다름.



보고 3.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끝난 실험들

캐나다 온타리오 “기본소득” 실험(2)

실험 경과:

2017년 4월 해밀턴과 선더베이 실험 시작, 같은 해 10월 린제이 실험 시작.

2018년 7월 31일, 더그 포드 신임 주지사(보수당)의 조기 중단 선언.

결국, 실험 참가자들에게 2019년 3월까지만 지급되고 종료될 예정.

중단 선언 이후 상황:

(6월 주지사 선거 때까지는 더그 포드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실험 보장을 약속함.)

기본소득캐나다네트워크, 기본소득 지지 학자들과 시민들, 실험 참여자들의 비판과 항의가 이어졌음.

연방정부에 개입을 요구했으나, 연방정부에서 ‘관여 사항이 아님’을 표명함.



보고 3.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진행 중인 실험들

네덜란드 지자체들의 “신티” 실험(1)

실험 개요:

사회부조 수급자들의 수급조건에서 현행 구직노력 의무를 없애고 벌이가 있더라도 복지급여의 일부를 계속 지급하는 제재완화실험.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부르지 않음.)

사회부조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과 사회 참여, 건강과 안녕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함.

실험 배경: 2015년 제정된 참여법과 더불어 시행된 소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용된 상태에서는 복지급여를 지급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되고 일자리를 구한 후에는 계속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아짐.

실험 방법:

네덜란드 지자체 7곳에서, 사회부조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2년간 제재완화 실험을 실시.

수급자들은 통제집단 또는 실험집단에 무작위로 배정되어 실험에 참여함.



보고 3.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진행 중인 실험들

네덜란드 지자체들의 “신티” 실험(2)

실험 경과:

2017년 하반기에 시작됐고 2년간 지속될 예정.

사회복지고용 장관의 제한조건이 있었고, 암스테르담을 제외한 6개 지자체에서 제한조건을 받아들임.

(암스테르담 실험은 2018년 2월에 시작됐고, 중앙정부의 제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실험임. 즉, 구직노력, 법적인 호혜성 요구, 강도 높은 직업상담 등의 단서조항이 없는 실험임.)

‘참여법’이란?

지불노동으로 스스로를 (일시적으로) 부양할 수 없을 때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2015년 제정). 능력이 되는 모든 사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노동’을 해야 한다고 명기함. 보충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구인 일자리에 지원해야 하고 주 1회 정도 규칙적으로 단순노동이나 자발 노동을 해야 함.



보고 3.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진행 중인 실험들

바르셀로나 “B-민컴” 실험

실험 개요:

바르셀로나 시정부가 바르셀로나 극빈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보충해주는 최저소득보장제 (Guarantee Minimum Income)를 시행한다는 바르셀로나 시 결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실험.

1970년대 캐나다 매니토바의 민컴 (Mincome) 실험에서 영감을 얻은 NIT 실험.

실험 방법: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2년간 진행되는 실험.

‘익스 베소스’라는 빈곤지역에서 자원한 1,000가구(25~60세 가구원이 있는 가구 대상)에 게 8가지 유형의 지급모델에 따라 매달 보충급여 100~1,676유로를 지급하고, 지급액의 일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로 지급함(통제집단 1,000가구).



보고 3.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진행 중인 실험들

중국 마카오 현금배당계획

정책 개요: 2008년부터 마카오의 카지노 수익에 대해 거주자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현금배당계획(現金分享計劃, Wealth Partaking Scheme).

2019년 배당 계획: 영주권자(663,400명)에 연 100,000파타카(=1094유로), 비거주자(180,000명)에 연 6,000파타카(=656유로)로 확대하기로 함.

BIEN 대회

2018년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18th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Congress

2018년 8월 24~26일, 핀란드 탐페레

대회 주제

기본소득과 새로운 보편주의: 21세기 복지국가를 다시 생각하다

(Basic Income and the New Universalism: Rethinking the Welfare State in the 21st Century)



보고 3.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BIEN 대회

2019년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19th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Congress

2019년 8월 23~25일, 인도 하이드라바드

대회 주제

자유와 발전으로서의 기본소득(Basic Income as Freedom and Development)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즉각적 호소는 기아와 수탈, 교육과 의료의 이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의 ‘발전’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맥락에서, 즉시성은 우리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소외된 일’로부터의 자유로 느껴질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듯하다.” (대회 조직위원회)



보고 3.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임박한 실험들

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턴 시의 기본소득 실험

실험 개요/방법: 18개월 동안 스톡턴 시의 빈곤지역(시의 중위 가구소득 이하인 지역) 18세 이상인 시민 약 100명에게 매달 500달러를 지급하는 소규모 기본소득 프로젝트. 2019년 2월 시작 예정.

실험 특징:

사적 기금으로 실시하는 시정부 사업

스톡턴 시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이지만 100% 사적 기금을 재원으로 함. 주요 기부자는 ‘경제적 보장 프로젝트(The Economic Security Project)’ 재단을 비롯한 기술산업 관계자이거나 자동화 이슈로 동기 부여된 사람들임.

기본소득제의 실현을 위한 일화적 증거에 주목

“스톡턴 실험”이라 부르지 않고 “스톡턴 경제적 역량강화 시연(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약칭 SEED)이라고 부름. “과학적 실험”이 아니라 “보장 소득 시연”을 계획 중임. 즉, 목표는 엄격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정치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일화적 증거를 보여주는 것에 있음.



보고 3.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임박한 실험들

Y콤비네이터연구소의 기본소득 실험

실험 개요: 미국의 2개 주에서 해당 지역의 중위소득 이하인 21~40세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는 실험. 통제집단은 2천 명이고, 매달 50달러를 받게 됨. 총 비용은 6000만 달러이고, 이 중 75%가 실험 참가자들에게 지급됨.

실험 목적: 실험 참여자들이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지만, 초점은 기본소득이 사회적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에 맞출 계획임.

실험 기간: 3~5년(2019년 시작 예정)

실험 특징: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사적 기금으로 실시하는 민간연구소 실험

미국 벤처캐피탈기업인 와이콤비네이터 산하의 비영리연구소에서 계획 중인 실험. 사적 기금만으로 대규모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함(펀딩의 어려움 지속).



보고 3.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임박한 실험들

독일 하르츠플러스 실험

실험 목적: 빈곤층에 대한 조건 없는 현금 이전이 노동시장 행위, 건강,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실험 방법: 기존 하르츠 IV 급여 수급자 가운데 자원신청자 250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조건 없는 현금 이전을 하는 실험(통제집단 250명).

실험 기간: 베를린에서 3년간 실험(2019년 5월 개시).

실험 특징:

사적 기금으로 실시하는 민간단체 실험

비영리단체 장크천스프라이(Sanktionsfrei)에서 실시. 사적 기부로 재원 마련.



보고 3.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이제 막 준비 중

스코틀랜드 기본소득 실험

실험 개요: 글래스고, 에딘버러, 파이프, 노스에어서 등 스코틀랜드 지자체 4곳에서 실시하는 기본소득 실험.

실험 배경: 2017년부터 글래스고, 파이프, 노스에어서 등의 지자체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검토함. 2017년 9월, 스코틀랜드 지방정부(스코틀랜드민족당, 영국 노동당보다 왼쪽)에서 실험 계획을 발표, 12월, 연구/준비 예산을 배정함.

준비 과정: 영국왕립예술협회(RSA) 스코틀랜드 지부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설계 중이고, 현재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기본소득을 위한 초당적 논의체를 운영 중임.

관심 방향: 건강, 자동화/노동의 미래/인공지능, 인권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조응하는 기본소득, 스코틀랜드 파일럿 등.



보고 3.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이제 막 준비 중

우크라이나 파블로흐라드 기본소득 실험

실험 목적: 조건 없는 현금 이전이 노동시장, 주객관적 웰빙, 재정건전성,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측정.

실험 방법: 현재 준비단계. 무작위 선정된 성인 시민 2,000명에게 24개월 동안 매달 100유로 지급(우크라이나 월평균 임금 286유로임).

실험 자원: 국내외 공적 사적 자선기관들에게 기금을 모아 자원 마련할 계획.

인도 시킴 주 기본소득제 약속

정책 가능성: 인도에서 2번째로 작은 주인 시킴(Sikkim), 환경의식, 민족다양성, 관광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 1994년부터 집권한 정당인 시킴민주전선(Sikkim Democratic Front, 약칭 SDF)이 2019년 의회선거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채택함.

시행 시기: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함.

정책 자원: 수력발전에서 얻은 초과에너지 수익, 기존 복지프로그램의 비용 일부를 기본 재원으로 하고, 세금체계 개편과 관광수익 활용 등도 미래 재원으로 검토하고 있음.

